

기록보존론

이경래 · 이은영 저. 서울: 선인, 2013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교육총서 3)

조 이 형*

시대가 바뀌거나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변경되더라도 기록관리 기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보존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특히, 중요 기록물의 후대전승을 위해서는 보존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기록관리 분야의 중요한 기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TNA)에서는 기록관리 업무흐름을 크게 3단계 선별(Selection), 보존(Preservation), 열람(Access)으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과 업무 수행을 이 틀에 맞춰서 수행하고 있다. 비록 최근 국내외 흐름이 기록정보의 활용과 서비스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보존영역의 비중이 후순위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 보존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활용을 논할 수가 없다.

기록관리 분야에서 보존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는 기술이 급변하거나 대규모 투자와는 거리가 있어 과학적인 연구나 분석에 연구 인력이 집중되지 않고, 성과가 빠르게 도출되지

* 국가기록원 연구관. 주요 논저: 「미국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동향 및 시사점」(공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011; 「기록매체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공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12.

않는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물리, 화학, 생물, 전자 등 다양한 이공학 분야의 이론적 지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장비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기록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과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최근 기록보존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생산매체, 열화와 훼손, 보존환경과 시설, 보안과 재난관리 등 기록관리기관에서 필요한 보존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이론과 기술을 구분하여 정리한 한국국가기록원 교육총서 시리즈 3 「기록보존론(이경래·이은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보존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게 정리하였고, 세부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처음 보존학을 접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이 책은 기록보존, 보존계획, 기록 생산 매체, 열화와 훼손, 보존 환경·시설·설비, 기록물의 보존처리, 기록물의 복원, 보안·재난관리와 필수기록 관리, 사본제작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장에서는 큰 틀에서 보존의 정의와 원칙, 그리고 보존의 특성을 기본적인 개념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포함된 보존관련 원칙, 규정 등을 알기 쉽게 내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법령에서의 보존내용을 일괄 정리한 것이 독자에게 쉽게 접근가능하게 하는 장점으로 보인다. 2장에서는 보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반적인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 보존계획 수립의 전제, 보존 목표, 보존 인력, 보존 예산 책정 등을 고려요소로 제시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보존계획의 수립함에 있어 실무적 도움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과학기술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기록매체의 종류를 종이류, 사진·필름류, 자기·광매체류, 섬유류 등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각 기록매체 유형에 대한 특성과

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보존수명에 대한 고려 지표를 언급하고 있다. 종이와 사진 필름에 비해 전자매체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향후 전자매체 유형별로 기록되는 원리, 매체 특성별 구분 기준 등의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열화와 훼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 열화와 훼손의 요인에 대해 매체 재질 자체의 수명(내구성)에 따른 자연적인 요인과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훼손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어 훼손 방지에 중요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온도, 상대습도, 공기질, 빛, 전자기 등 환경적인 열화 요인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다. 보존환경을 최적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보존시설과 설비에 필요한 사전 고려사항, 설계, 배치 등 필수적인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부처 단위 기록관이나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 실제 운영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6장에서는 사전적인 보호 차원에서 기록물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훼손 등으로 인한 적합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산성화와 생물학적 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탈산과 소독처리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존성을 보장해주는 보존용품과 장비를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화학적, 생물학적 열화·훼손의 규모에 따라 탈산과 소독처리의 경우도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장에서는 기록물의 복원을 위한 상태평가와 구체적인 복원처리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기록물을 보존처리하거나 복원을 결정할 때는 기록물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복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 가장 권고되는 방식이다. 종이기록물의 복원내용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반면, 전자매체의 복원방법에 간략히 서술되어 있어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8장에서는 보안과 재난 대책과 관련하여 정의와 종류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으로 구분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단계별로 취해야 할 재난 대책을 서술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9장에서는 사본제작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마이크로필름화·디지털화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실제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분산보존 그리고 매체 자체의 수명 한계로 인해 대체보존이 필요한 경우, 매체 사본 제작이 중요함으로 이 부분의 내용이 보다 상세히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저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기록보존에 관한 기존의 국내 저서들이 대부분 보존처리와 복원 등의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 책은 기록물 보존의 주요 개념과 세부사항을 조화롭게 잘 정리하고 있다. 즉, 보존을 일종의 숲으로 크게 구분 짓고, 큰 틀 내에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해 알기 쉽게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존을 우산 개념(Umbrella concept)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보존과 복원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존 계획과 환경, 훼손 예방적인 측면까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책의 아쉬운 점은 국가기록원 표준 자료와 국내 발간 도서, 해외 자료 일부 등 참고자료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보존분야의 자료나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는 기록학을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보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히는 한편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에게는 충실한 안내서로 기능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